

台灣經濟의 均衡成長과 그 原動力에 關한 研究

林熙喆*

- | | |
|----------------|---------------------------|
| 1. 머릿말 | · 平均地權 |
| 2. 지금까지의 成就 | · 節制資本 |
| 3. 環境差 | 5. 土地·不動產政策의 適合性 |
| 4. 經濟運營方式의 適切性 | 6. 「食衣住行育樂」의 先導部門 - 國公營事業 |
| · 民生主義의 特徵 | 7. 結語 - 安定과 繁榮의 기틀 |
| · 養民 | |

1. 머릿말

均衡成長은 經濟를 다루는 사람이면 누구나 希求하는 바이다. 그러나 經濟成長과 同時に 部門間 및 所得分配의 均衡을 期하기는 甚히 어렵고 그러기에 지금까지 開發에 成功한 國家는 거의 모두 先成長後均衡의 길을 擇하였다. 그런데 台灣經濟는 兩者를 並進시키는데 成功하였다고 하는 點에서 우리의 注目을 받는다.

台灣經濟의 成長이 우리의 그것에 뜻지않고 그 위에 分配面의 均衡이 이루되었다면 그 源泉 또는 要因은 어디에서 찾아질 것인가. 거기에서 배울 點이 무엇이고, 배울 수 없는 것은 무엇이며, 過去의 成就가 반듯이 앞으로도 그대로 維持될 것인가.

이는 우리가 배울 것을 가려내는데 도움되고 餘他開發途上國의 參考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그 長點을 살펴 본다.

2. 지금까지의 成就

台灣은 36,000 km²의 面積위에 1,800 萬名의 人口를 갖고 1人當 GNP는 2,400 弗台에 이르러 그 經濟規模는 約 450 億弗이다.

우리의 面積 98,000 km², 人口 3,800 萬名, 그리고 1人當 GNP 1,600 弗 經濟規模 660 億弗과 比較할 때,

面積에서	37 %
人口에서	47 %
GNP는	68 %

* 本研究所 研究員, 檳國大 商經大 教授

에 該當한다. 여기에서 台灣의 經濟的 成就가 우리보다 2倍 (面積當G N P) 乃至 1.5倍 (1人當G N P) 앞선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台灣의 1982年 商品輸出은 222億弗로 우리의 總輸出 210億弗을 10餘億弗이나 웃돌고 있다. 이것을 1人當輸出額으로 計算해 보면

台 灣	1,200 \$
韓 國	550 \$

이 되어 台灣國民은 우리 보다 平均輸出額이 2倍以上 된다는 事實을 注目하게 된다.

台灣의 經濟成長은 過去 30年間 年率 9.2%의 高率을 示顯했다. 出發은 우리와 大差없이 解放後 1人當 GNP 가 70弗線이었다. 60年代中盤以後 우리의 成長 또한 그에 끗지 않았지만 그以前이 差異난다. 即, 50年代에 年平均 8.2%의 成長을 하였고 60年代에 9.4%, 70年代에 9.9%를 示顯한 것이다.¹⁾

輸出은 1952年에 이미 1億弗台를 넘어섰고 輸入은 2億弗에 가까워서 1970年까지 貿易赤字를 시현하였던 것은 우리나라 마찬가지였다. 1971年에는 輸出이 20億弗台를突破하고 輸入은 18億弗로 貿易收支가 黑字로 轉換하여 以來 石油波動後인 1974, 1975年을 除外하고는 黑字를 持續하여 왔다. 그리하여 外換保有高는 (公式發表는 비록 않하지만) 100億弗以上 될 것으로 믿어진다.

이렇게 國民總生產이나 輸出이 急成長을 持續하면서도 貿易收支는 70年代에 들어서면서 黑字轉換하고 外換保有高도 그에 따라 累增하였으니, 그 結果 換率의 安定과 物價의 安定이 持續되었다.

換率은 1952年에 美弗當 13NT\$ 였던 것이 1961年 40NT\$線까지 繼續 上昇하였으며, 1972年까지 그 線을 維持하였으나, 그 後 徐々히 低下하여 1980年 36NT\$線에 이르렀다가 1981年에 反騰 1982年에는 38NT\$台를 示顯하고 있다.²⁾

그리하여 實質賃金의 急激한 上昇에도 不拘하고 (圖1參照) 物價는 1974年 (消費者物價 47%上昇) 과 1980年 (19%上昇) 兩次의 石油波動直後年度를 빼고는 1960年以來 繼續 安定水準 即銀行短期預金 金利水準을 밑도는 낮은 上昇率을 나타내었다. 그것은 곧 國內貯蓄率을 30%內外의 높은 境地에 까지 끌어 올리는 데 決定的要因이 되었을 것이다.

國內貯蓄率이 높음에 따라서 對外債務負擔은 매우 낮을 수 밖에 없으니 昨年末現在의 外債殘高는 57億弗에 不過하다. 이것은 年間輸出額의 25%에 該當하여 開發途上國 特히 急速成長國一般이 지고 있는 100%以上의 莫重한 外債負擔에 비추어 顯著히 輕한 것이다. 더욱기 償還能力의 尺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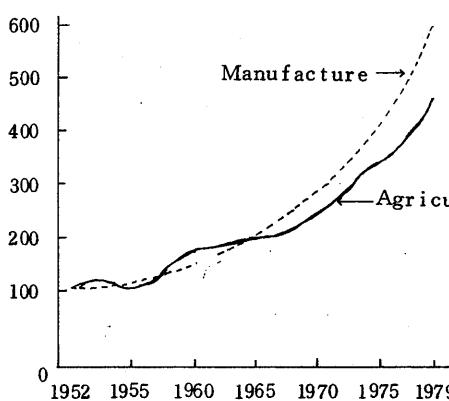
1) The Taiwan Success Story by Kuo, Ranis and Fei, Westview Press, p.7.

2) 中華民國 進出口 統計月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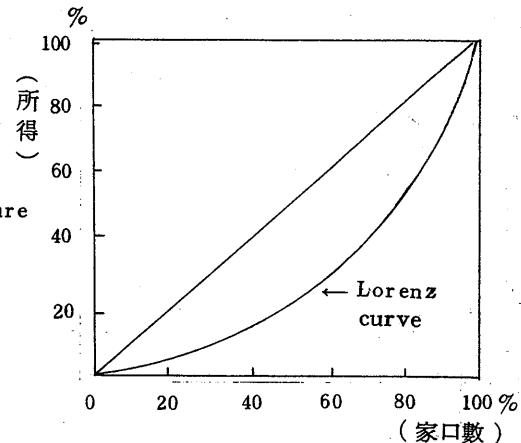
로서 經濟成長과 輸出伸長勢를 取한다면 그것은 거의 없음과 다름 없다.

所得分配面에서도 開發途上國 或은 中進國·一般에게 慢延되어 있는甚한 所得格差는 없다. 台灣에서의 上位 20 %의 所得階層이 全體國民所得에서 占하는 比重은 45 %에 不過하다. (圖2 參照)

<圖1> 實質賃金指數 (1952=100)



<圖2> 台灣經濟의 ロレンズ曲線



資料 : The Taiwan Success Story,
p.21에서

資料 : 圖1과 同, p.86.

3. 環 境 差

사람이 定着한 곳이 寶物섬이면 그들은 덜 努力하고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며 反面에 不毛의 땅에定着한 사람은 더욱 努力하여야만 그들과 같이 살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追越하고자 할진엔 갑절의 努力이 要求될 것이다.

台灣은 現住하는 中國人에 依해서 즐겨 「寶島」라고 불리운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資源缺乏國을自處한다. 그것은 비록 地下資源에는 缺乏할 지언정 地上資源은 豐富하기에 相反되게 自己內의 處地를 일컫는 것이다.

우리보다 더 成功的인 經濟的成就를 台灣이 이룩하게 된 裏面에는 國土의 肥沃度와 賦存資源의 差라든지 國民의 勤勉·節約의 程度等 環境面의 差異도 있을 것이다.

言必稱 台灣이나 韓國이나 賦存資源이 缺乏한다고 하기는 하지마는, 이것은 再生不能資源에 限定한 얘기이다. 即 한번 캐서 使用하고 나면 다시 產出할 수 없는 地下資源에 있어서는 그런 얘기가妥當하다.

그러나 再生可能資源에 있어서 台灣은 매우 豐富한 資源을 갖고 있다.

農耕地面積은 台灣이 全國土의 25 %인 9,150㎢, 韓國이 22.7 %인 22,300㎢로서 農家戶當耕地面積은 台灣이 1.02町步이고 韓國이 0.968町步이다. 그 위에 台灣의 穀生產은 2毛作(北部)乃至 3毛作이 可能하며 種作物은 거이 年中 無休로 國民食糧供給이 豐足하고, 그밖에 사탕 수수와 여러가지 热帶果實이 生產되어 國民食生活에 뿐 아니라 初期의 輸出 即, 開發所要外貨의 稼得에도 크게 寄與했다.

賦存資源面에서 台灣이 우리보다 나은 點은 工業化以前의 輸出實績의 比較에서도 發見할 수 있다. 即, 兩國의 輸出의 大宗이 1次產品이었던 1961年 우리나라의 輸出이 4,000 萬弗에 不過하였는데 反하여 台灣은 2億 5,000 萬弗에 達했었다.

이것은 우리가 어찌하지 못하는 與件差異인 것이다.

이밖에 準與件이라고나 할까 長期間에 걸쳐서는 그 改變이 可能할지 모르지만 短期的으로改善하기 힘든 國民性의 差異도 看過할 수 없다. 中國人特有의 끈기와 儉素함은 우리의 燥急한 活力만 갖고 서는 競爭하기 어렵다. 特히 그들의 勤儉節約하는 生活態度는 物價의 安定과 貿易收支의 均衡에 이 바지할 뿐 아니라 西歐나 日本等 經濟的先進國家의 合理的國民像과 매우 近接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奢侈·浪費의 면에서 一穫千金을 바라는 一部의 思考方式의 改變을 가져오는 데에는相當한 時間이 所要될 것이다. 물론 國民의 意識構造를合理的의 方向으로 改造하여 나아가는 努力은 繼續되야 하지마는 그 效果를 煙急히 期待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러기에 이것도 하나의 經濟的與件이라 할 것이다.

이 밖에 台灣의 發展은 그 政治的支配領域이 敵對的領域과 陸續되어 있지 않는 地理的條件이라든지, 歷代王朝의 遺物을 고스란히 물려 받아 維持하고 있다는 歷史的環境等 有利한 與件下에서 出發한 工業化였다.

勿論 우리에게도 單一民族이라든지 迫力있는 國民性과 같은 經濟發展에 有利한 環境要因도 없는 것은 아니다.

台灣의 氣候가 作物成長에 有益하지만 사람의 活動에는 不利하다는 點도 있다. 거기서는 每日 2時間의 午睡 없이 午後의 活動이 어렵지만 우리는 1時間의 畫食時間으로 足하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서로가 배우거나 模倣하거나 改變하고자 해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우고자 함은 努力의 浪費이다.

4. 經濟運營方式의 適切性

이제 우리가 또는 餘他의 開發途上國이 參考하거나 배울 수 있을 台灣經濟의 成就의 要因은 무엇인가를 考察해 보아야 하겠다.

우선 무엇보다도 重要한 要因으로 指摘할 수 있는 것이 民生主義라는 政策指導理念이다.

台灣經濟의 꾸준하고 安定的인 發展의 原動力은 그 經濟의 領導集團(이것은 政治的 執權勢力)에 도 좋다.) 이 確固한 指導理念을 갖고 있으며, 또한 狀況의 變動에 따라 갈팡질팡 하지 않는 의연한 對處에서 發見된다.

그들이 갖는 經濟的 指導理念은 單純히 莫然한 民主主義나 自由·平等 따위의 類型과는 달리 보다 嚴密히 民族的 歷史的經驗에 바탕을 둔 具體的인 政策指導理念으로서의 民生主義인 것이다.

民生主義經濟政策을 펴 나감에 있어서 中華民國政府는 具體的으로 指摘된 孫文의 民生主義政策 指針을 時代의 變遷에 適應시켜 가면서도 그 本意를 充實히 지켜오고 있다. 그리고 그 時代에의 適應에 있어서는 即興的 改變을 삼가면서 處變不驚이라는 政治的 뭇토와 같이 變化의 推移를 嚴密히 觀察하고 類似한 國內外의 前例와 그에 對應한 處方을吟味考察한 後에 慎重히 政策을 改善하고 一旦 爬혀지고 執行되는 政策은 相當期間 變改하지 않는 餘裕를 갖는다.

以下에서는 民生主義의 要點과 民生主義經濟政策의樹立, 執行狀況을 살펴 보고자 한다.

【民生主義의 特徵】

民生主義의 特徵으로는 그것을 資本主義와 比較하여 論述한 台灣大學 豐教授의 所論을 引用하되 吟味하기로 한다.

「民生主義와 資本主義는 그 本質에 있어서 差異가 있으니, 民生主義經濟學은 다름아닌 民生主義原則에 立脚해서 指導되는 經濟學이다. 一般經濟學을 배라고 하면 民生主義는 바로 키다. 배는 爽대가 正確히 引導하여야만 “經濟가 目標하는 對岸”을 向하여 치달을 수 있는 것이다.

一般經濟學도 “目標의 對岸”에 能히 가 닿을 수 있을 것을 바라는 바이지만 그것은 겨우 “보이지 않는 손”에 依해서 運營되는 것으로 方向을 衰失하는 수도 往々 있다. 民生主義라는 計劃性 있는 自由經濟는 바로 “보이는 손”이며, 同時에 그것을 따라 오는 “보이지 않는 손”에 依해서 航海의 뱃길을 잘못잡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自由主義經濟가 갖는 弊害를 極少化하면서 그 長點 即 競爭을 通한 效率의 增進은 最大限 살린다는 것이다. 經濟의 目標는 國民福祉의 增進이다. 中國의 경우 그것을 위한 길은 市場 哈카니즘을 尊重하되 그 缺陷의 是正을 위해서는 그것이豫測과 計劃과 그 實踐으로 誘導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養民·均富】³⁾

民生主義가追求하는目標는 養民이라고 한다. 그런데 養民은 「돈 벌기」와 反對語로 註釋된다. 即. 돈을 버는 것이 目的이 아니고 國民生活을 保養하는 것이 目的이라고 한다.

옛 王朝나 封建諸侯에 있어서는 스스로의 財政을 擴充하기 위해서 國民의 死活은 顧慮치 않았던 것이一般的이었다. 特히 末期 清朝에서는 朝庭에 바치는 租稅外에 腐敗官吏의 苛斂誅求가 極甚 했다. 더욱이 阿片戰爭後의 財閥과 軍閥의 勾結은 社會經濟를 龍斷하여 一般國民生活은 塗炭에 빠진 狀態였다.

여기에서 養民을 目標로 하는民生主義가 創生하였으니 이것은 王朝의 浪費와 官吏의 腐敗, 閣族의 龍斷等을 排除하여 民生을 安定시키고 福利를 增進시킴으로써 國家의 基礎를 鞏固히 하려는 것이다. 養民의 概念은 孫文의 獨創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主流는 傳來의 中國經濟思想을 近代經濟狀況에 適用시킨 것이다. 그 위에 先進工業國의 痘弊를 거울삼아 均富概念을 導入했으니 금상첨화이다. 均富는 共產主義의 均貧化와 對照의이다.

【古來의 中國經濟思想】

中國의 經濟思想 가운데 周王室을 統一中國의 象徵으로 받들었던 春秋五霸時代 孔子의 「正己身以令天下」即 領導者는 그 몸가짐을 바르게 함으로써 國家를 다스린다는 主張이 奢侈·浪費 없는 王室이나 腐敗없는 官吏像을 倡導한 것이라면, 戰國七霸下에서 孟子가 大膽히 부르짖은 「民爲貴, 社稷次元, 君爲輕」이라는 口號는 國民이 國家存立의 基礎이며 國民生活이 不安하면 國家 또한 富強할 수 없다는 信念의 表現으로, 이것은 「保民而王」即 國民을 保養하고 난 後에 王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性惡說로有名한 荀子는 弱肉強食을 일삼는 諸侯들과 그 밑에서不安한 生活을 하는 國民을 보고 사람의 欲望이 限敘음을 느껴 人類가 善解지기 위해서는 우선 欲利를 滿足시켜주고 그래도 欲利가 無限히 擴大되는 것을 制止하기 위해서 禮를 가르쳐야 한다고 「薄賦·教化」를 主張했다.

明代 張居正은 「便民省時」의 原則을 세워 稅制를 改革하되 「一條鞭法」을 創立하여 一切의 諸稅·賦役을 한데 組어서 民生을 便利하게 하고 時間을 節約하게 하였다.

周初의 井田制度나 北魏와 唐初에 施行된 均田制等은 純農業國家에서의 均富政策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孫文의 民生主義가 指向하는 目標는 이들 中國傳來의 經濟思想을 根幹으로 한 것으로 거기에 欧美 工業國家에서 發生한 諸經濟思想의 長短點을 取捨組合시켰다는 것이다.

3) 魏萼著, 民生議經濟學, pp.63-72 參照。

即 孫文은 產業革命後 最先進國家로서 工業化가 成熟한 英國에 慢延되고 있던 富益富 貧益貧 現象과 失業沙汰를 目睹하고 여기에서 均富의 必要性을 느꼈던 것 같다.

【平均地權】

民生主義의 兩大支柱는 「節制資本」과 「平均地權」이다. 그 中에서도 平均地權이 根本支柱가 되는 點은 蔣介石 前總統의 1927年1月의 演說文中에서도 明白히 되어 있다.⁴⁾

平均地權은 다시 兩分하여 「耕者有其田」과 「住者有其屋」으로 나뉜다. 前者は 農民의 生活問題을 解決하는 것이고 後자는 都市生活者의 主要問題을 解決하는 것이다.⁵⁾ 그뿐 아니라 「耕者有其田」은 農民의 生活條件改善이라는 當初의 多分히 對共政治的 目的에서 한결음 더 나아가 이것은 農民의 生產意欲을 駁구어 生產性을 向上시키고 全體 國民經濟에 寄與하게 되었던 것이다.⁶⁾

耕者有其田은 1949年 中華民國政府가 台灣으로 건너온 후 곧 實施한 375減租⁷⁾와 國有地의 耕作者에의 拂下(所謂公地放領)와 1953年에 施行한 「耕者有其田條例」⁸⁾로써 農地의 平均的 分配가 完成되었다.

都市에서의 「住者有其屋」은 區域別地價公告, 各自地價申告, 照價徵稅, 照價收買, 漲價歸公의 由來 節次를 通해서 漸進的 自發的으로 土地의 過占投機를 抑制하게 한다는 것이다.

即 政府는 基準地價를 公告한다. 那은 個別筆地別이 아닌 地區別로 합으로 個別土地所有者는 自己의 地價를 申告한다. 國家는 稅金을 課徵함에 있어서 公告價格과 申告價格中에서 어느 쪽으로나 할 수 있다.(照價徵稅) 이것은 地價가 오를 때는 높은 쪽을 課標로 하고 地價가 내릴 때는 낮은 課標를 取할 수 있을 것이다.

土地所有者는 稅金을 생각하면 基準地價보다 낮게 申告할 傾向을 갖겠지만, 다음의 政府收買를 생각하면 申告價를 높게 하려는 傾向을 갖게 될 것이다.(照價收買) 即, 國家는 住宅建設이나 公園 其他 公共目的의 土地를 收買함에 있어서 申告地價를 支拂하고 收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土地에의 投資가 其他의 生產的投資에 比하여 收益性이 높건 容易하기 때문이건 選好될 可能性은 아직도 있을 수 있다. 이에 對處하여 漲價歸公이 있다. 換言하여 일하지 아니하고

4) 中央文物供應社刊, 「先總統蔣公財經思想之研究」 p.65.

5) 鮑慶文庫刊, 論民生主義國民住宅之建設, p.132.

6) 中央研究院 三民主義研究所 專題選刊 16号, 經濟發展的階段与耕者有其田 參照。

7) 이것은 過去 50%였던 稲租를 37.5%로 軽減한 것임. 台灣省政 建設現況 p. 15.

8) 이 條例는 農地改革法으로 畜所有上限 3甲, 밭은 6甲으로 하고, 그 以上은 國家가 有償売上 小作人에게 有償分配한 것이다. 甲은 0.97ha로 1949年에 實施한 우리의 農地改革(上限3정보)과 比等하다.

生產하지 아니하면서 利得을 얻을 素地가 있을 때 누가 애써 일하며 生產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그와 같은 不勞所得은 生產的投資를 委縮시킬 것이므로 膨張한 價格은 公共에 돌려진다는 것이니 急激한 累進稅率를 適用하여 賣買差額 뿐 아니라 申告價格差를 吸收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必要以上의 土地所有는 多額의 稅金을 내지 않고는 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土地의 過占은 적어지고 따라서 土地所有의 平均化가 漸次 達成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不動產投機의 發生素地는 平均地權의 觀念에 依해서, 그리고 漲價歸公의 稅制에 依해서, 또한 不動產價格上昇要因을 잘 除去해 나가는 財政·金融政策에 依해서 抑制되어 왔다.

【節制資本】

孫文의 說明에 依하면 節制資本을 民生主義의 또하나의 根幹으로 삼는 理由는 「民間資本으로서 國計民生을 圖謀하고 貧富格差가 顯著해지는 것을 避하고 階級鬭爭을 免하는 方向으로 操縱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⁹⁾ 結局 國家資本에 依해서 經濟가 操縱(誘導)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三民主義의 創始者인 孫文은 그 時代 中國國內事情에 對處하기를 欧美에서 抬頭되고 있던 諸思潮를 吟味·取捨하여 適用시킨 努力의 結果라고 생각된다.

當時 中國은 清末의 亂脈속에 民心의 離反과 地方軍閥과 勾結된 財閥의 발호 그리고 外國資本의 取利等과 그 틈에 움트고 擴散되어가는 共產主義에 對處해야 했다.

여기에서 節制資本의 4 가지 實踐方法으로 그는 獨逸의 國家社會主義에서 ① 社會와 工業을 改良하고 ② 運輸交通의 國有化方針을 取하고 ③ 英國式稅制를 導入하여 直接徵稅와 ④ Robert Owen의 空想的 社會主義에서 分配의 社會化를 取했다고 한다.

이中에서 第1과 第2 即 大企業의 國營과 運輸·交通手段의 國有는 國家社會主義와 Fabian協會의 經濟思想과 密接한 關係를 갖는 것이다. 이것은 中國의 特色으로서의 內外資本과 離反에 關한 생각할 수 없었던 中央政府權力を 強化하는데 한편으로는 財閥의 膨大를 抑制하고 또 한편으로는 中央政府自體의 歲入源을 確保코자 하는 兩面의 考慮가 담겨져 있다고 볼 것이다.

勿論 여기에 必然的으로 慢延될 官僚主義의 弊害는 적어도 台灣遷移後 徹底히 防止되어 왔다. 이것이 台灣經濟發展에 큰 支桂役割을 했는데, 그것이 可能했던 要因은 大陸에서 전너간 官僚·管理集團의 背水陣中에서 本土收復의 念願下에 奉公이 強調되었기 때문이라고 想慮된다.¹⁰⁾

9) 前掲, 民生主義經濟學, p.91.

10) 이는 個々人의 意思와 特히 領導集團의 意志이다. 即, 大陸에서 전너온 사람들은 社會의 指導的或是 模範的人士로서 똑같은 犯法에도 台灣人보다 加重处罚되는게 보통이다. 一例로 1981年 台中地方 稅務局舞弊(汚職·스캔들)事件 때를 보면 大陸出身은 10年以上 無期, 台灣人은 7年以下의 处罰로 다스려짐을 본다.

台灣經濟의 均衡成長과 그 原動力에 関한 研究

直接徵稅는 間接稅에 對稱되는 直接稅重視라는 意味보다 오히려 地方軍閥 或은 其他의 諸侯閥族의 손을 거쳐 上納받던 過去 帝王의 徵稅方式을 止揚함으로서 中央政府의 基盤을 鞏固히 하려는 데에 그目的이 있었는 것으로 解釋된다.

끝으로 分配의 社會化는 中間利得의 排除 乃至 中間利得의 公共歸屬을 目的으로 各種 合作社(組合協會에 該當)가 그 通路口實을 하는 것으로 풀이 된다. 合作社聯合會의 長은 長官級으로 이를 合作社를 通하여 政府政策의 流通過程에 反映되고 다만 市場매카니즘에서 期待되는 效率性은 個人에게 委任된 小賣過程에서 發揮케 한다는 方式이다.

合作社中央機構(聯合會)에는 農商工 모든 業界와 消費者(員工合作社로 代表)의 動靜과 所望이 集中되어 그들間의 均衡과 調和를 驚歎하는데 큰 役割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이 集中되고 均衡·調和있게 分析·處理된 情報에 政策目標가 加味되어 틀잡힌 政策方向은 安定과 均衡위에 成長을 達成하게 될 것이다.

5. 土地·不動產政策의 適合性

政府政策은 國民의 價值觀과 符合될 때 그 實效를 거둘 수 있다. 個人이나 企業이 希求하는 바를 正確히 把握하고, 그를 追隨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對處함이 重要하다.

70年代初 美國이 金兌換停止를 宣言함으로서 國際市場에서의 金價는 暴騰했다. 人們 腦裡에는 金價 即 貨幣價值라고 傳統的觀念이 拂拭되지 않은 狀況下에서 그것은 곧 他物價에 波及되기 시작했다. 代表的인 것이 穀物과 石油價格이다. 1973年 前半에 美國의 穀物禁輸와 穀物價格의 暴騰도 이와 같은 脈路에서 볼 수 있다.¹¹⁾ 또한 그 해 後半에 있은 中東產油國의 石油輸出制限과 油價의 暴騰亦是 同一한 脈絡위에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¹²⁾

台灣에서는 이와같은 物價上昇壓力을 土地·不動產投機防止政策의 強化로 對應했던 것으로 보인다. 同年 中華民國政府는 住宅建築業者에 對한 貸出을 無期限禁止하였으며 그것은 1982年 一部緩和(1年以內의 短期만 許容)가 있기는 했지만 이는 어데까지나 莫大한 量의 新築空家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賣出되기까지 住宅供給業者の 倒產을 防止하기 위한 最少限의 緩和였던 것이다.¹³⁾

11) 勿論 더 다급했던 理由는 Peru沿海의 片目정어리 凶漁때문에 世界飼料市場 特히 豆類市場에 供給不足이 일어났고 또 우연히 그해 美國의 春穀이 凶作이었던 点을 否認하는 것은 아니다.

12) 여기에도 当時 中東產油국이 내걸었던 中東戰과 그에 따른 石油武器化라는 名分이 있었다는 것을 否認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名分이 썼더라도 世界市場에 油價上昇要因이 없었드라면 그 武器는 둑슨 武器로서 쓰이지 못했을 것이다.

13) 1982年 現在 新築空家(完工後 팔리지 않은 집)가 45萬戶이었다. 이 量은 台北의 全體 家口數와 맞먹는 数值이다. (人口 250萬人 ÷ 家口當人員 5.5人 ≈ 45萬戶)

中國人은 傳統的으로 金保藏을 選好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것은 中國大陸에는 戰亂이 끊이지 않았고 거기에서 金은 價值를 保藏해 주며 保管이 簡便하고 換價 即, 交換이 容易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實은 이것들이 바로 金이 價值尺度가 된 理由인 것이다.

世界에서 마지막으로 弗貨의 金兌換이 停止된 時點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點은 金에 代身하여 價值의 尺度가 될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點이다.

우리는 工業化以前에 쌀로서 價值尺度를 삼았었다. 그러나 이것은 產出量이 豐凶에 따라 差가 심할 뿐 아니라 變質可能하여 尺度로서 合當치 못하다. 石油가 現代生活에 아무리 重要하다 하더라도 그 것은 殘存可探埋藏量이 20年分 或은 30年分에 不過하다는 點만 보드라도 價值尺度가 될 수 없다.

土地는 有限하고 그 形質은 큰 變化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保藏에 減價도 하지 않는다. 土地는 不可分이지만 사람은 그것을 一定한 單位 即坪, 平方m 또는 아-르나 헥트·아-르等으로 조개어 그에 對한 單價를 計算한다.

그렇다면 土地는 價值尺度가 되기 위한 充分한 條件을 갖춘 單하나의 물건 인지도 모른다. 그것이 갖는 缺陷은 不可移動性이다.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空間的移動이 不可能하다. 그러나 商品으로서의 移動은 書類(權利證)로서 하게 된다.

그런데 土地의 또 하나의 더욱 重要한 特徵은 그 用途變換可能性이다.¹⁴⁾ 그 空間的移動不能性에도 不拘하고 用途變換 possibility 때문에 그 自體의 價格形成은 位置에 따라 다르지만 그 擇一的 生產物의 價格은 각々同一하다. 더군다나 그들 農作物을 비롯한 住宅等 土地위의 生產物은 衣食 및 住生活에 不可缺의 生必品에 屬하여 需要의 價格彈力性이 매우 硬直의이다. 또 이들 作物·住宅 價格은 生必品의 原料 아니면 直接 生必品으로서 實質賃金에 影響이 深重하여 一般物價를 支配한다.

더군다나 土地는前述한 諸特性으로 因해서 金銀·寶石이나 證券과 더불어 價格이 上昇하는 傾向에 있을 때 需要量이 增大하는 傾向을 갖는 小數의 商品種類에 該當한다.¹⁵⁾ 따라서 インフレ下에서는 インフレ 促進의이다.

그렇다면 インフレ에 對處하는데는 土地價格의 安定이 決定的으로 重要하다.

그런데 平均地權은 土地所有를 制限하고 漲價歸公으로 不勞而所得은 어느程度 防止한다.

"돈 놓고 돈 먹기"를 防止하려면 "돈도 안놓고 돈 먹기"는 더욱 防止해야 한다.

14) Thomas Sowell, Economic Analysis and Issues, p.56.

15) 이와 같은 商品을 "기ечен" 財(Giffen Goods)라 부른다. Giffen財의 需要曲線은 供給曲線과 같이 右上向曲線이다. 水野良象著, 商品學說本.

建築業에 對한 銀行貸出禁止는 바로 그 自己資本에 依하지 아니하고 他人資本에 依해서 富를 蓄積하는 것을 防止하려는 것이다.

自己資金에 依한 建築은 막지 않는다. 따라서 建築業者는 土地所有主를 찾고 또한 資金供給可能한者를 찾아서 그들 兩者間에 合意하는 建坪의 分配方式條件에 따라서 兩者間 共同事業으로 하여 自己는 商業的으로 建築을 하거나, 또는 自己도 分配에 參加하여 三者共同事業으로 建築하는 境遇도 있다.勿論 이때 參與하는 資金供給者가 純粹한 自己資金에 依存한다는 것은 極히 例外的이고, 그가 所有하는 他事業 或은 物權을 擔保로 他人資本을 利用하는 境遇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價格上昇만을 無限定 기다리고 있을 수 없을 것이며 機會費用을 생각해서 賣却을 서두를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 土地·建物은 그 以上 인프레 促進의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와같이 하여 台灣에서의 여러가지 土地關聯政策이 物價安定에 相互有機的으로 寄與한 點을 높이 評價하고 싶다.

6. 食衣住行育樂의 先導部門—國公營事業

台灣에서는 國民의 基本的生活條件으로 「食衣住」에 「行育樂」을 追加하여 「食衣住行育樂」을 든다. 行은 交通·運輸의 便利를 나타내고, 育은 教育 即, 人材·人力의 開發·育成을 뜻하며, 樂은 國民娛樂 即 리크리에이션으로 食과더불어 勞動力의 再生을 돋는 것을 뜻한다고 풀이 된다.

이와같이 國民生活條件을 廣範하게 잡고 그와같은 生活條件의 改善에는 각己의 先導役割을 擔當하는 部門이 있음을 본다. 그것은 食生活에 台灣糖業公司, 衣生活에 國公營電視(비례비죤)公司, 住生活에 위에서 본 여러가지 政策手段이 活用되는 外에 台灣水泥(시멘트)公司의 役割이 있고 行生活에 國營인 鐵道 및 公路局外에 退伍官兵輔導會(除隊將兵職業 및 生活援助護機關)의 役割이 크며, 教育과 리크리에이션(樂)에는 青年活動中心(센터)의 役割等을 들 수 있다.

이들은 國家直營이 아니면 公營인 바 거기에서 官僚主義의 弊害가 發生 않고 發展의 機關車役割을 할 수 있는 要因이 무엇이냐에 關心이 미친다.

그것은 經濟的運營을 돋는 制度와 더불어 競爭을 誘發하는 裝置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例如 台灣糖業公司(製糖公社)를 보기로 한다. 砂糖수수栽培는 直營農場과 委託農家로 兩分된다. 委託農家の 砂糖수수 納品價格은 그것을 加工한 精糖販賣收入의 50%로 連動시켜 製糖公社의 過度한 利潤取得可能性을 排除하고, 直營農場은 그 收穫이 委託農家の 그것과 比較되기 때문에 그 效率性

은 自營인 委託農家에 뒤질 수 없을 것이다.

製糖公社는 또한 大規模養豚事業도 한다. 製糖에서 나오는 쇠꺼기를 飼料로 利用하는 事業으로 60萬頭가 直營養豚場에서 飼育되고 그 以上의 頭數가 一般農家에 委託飼育된다. 種豚과 飼料를 製糖公社가 대주는 두갈래 飼育方法이 相互比較·競爭의 일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生產되는 生產物은 競爭力を 갖게 되고 그 위에 大規模의 利益도 얻을 수 있게 된다. 即 全國 여러곳에 散在하는 糖業公社 試驗所는 製糖技術의 開發뿐 아니라 그 原料의 生產과 副產物의 處理와 關聯한 問題에 이르기 까지 그 研究·開發의 손길을 뻗쳐서 自體事業의 效率性增進뿐 아니라 一般農家, 企業에게도 그 研究成果가 傳播되어 農業研究所와相互補完해서 種子改良, 施肥, 蟲害防除의 改善에 寄與를 하고 있다.

電視公司 即 텔레비죤放送局의 運營에 있어서도 또하나의 合理的 或은 效率的經營의 한 斷面을 볼 수 있다. 即 쇼·푸로에는 大概의 境遇 出演者는 모델役割을 한다. 出演者가 모델役을 하는지 모델이 出演하는지는 分明치 않다. 何如間에 放送局은 時間만 配定하고 出演料와 衣裳은 패션社, 或은 衣類業界의 負擔인 것이다. 即 官僚主義의 非效率이 介在하는 幅을 統制에 가장 容易한 時間配定으로 極小化시키는 反面, 統制가 어렵고 非效率의 일 素地가 많은 個別 出演者나 衣裳等의 選定은 그 效果와 自己利害가 直接連結되는 民間當事者에 맡긴다는 點이다. 即, 胛손 쇼인 셈이다.

이것은 公營放送의 非效率을豫防함과 同時に 廣告의 效果增進에도 도움될 뿐 아니라 廣告費의 節減 即 原價節減에도 一助를 하면서 衣服디자인의 普及, 競爭力強化에 이바지한다.

公路 港灣等 社會間接資本의 形成은 材料供給者로서의 시멘트公社 및 鋼鐵公社와 輔導會三者の 総合作品이라고 思慮된다. 시멘트公社의 調查·企劃部門은 시멘트의 用途開發로서 地方 農村小路들을 시멘트 載裝道路로 整備하는데 寄與했을 것이며 鋼鐵公社의 該部門은 橋樑 鐵道等의 建造에 寄與했을 것이다.

輔導會의 役割은 아주 多角의이다. 除隊將兵의 就業等 援護에만 그치지 않고 그 스스로 數多한 事業體를 運營하여 여기에 除隊軍人을 直接 雇傭하며 同時に 利益을 내어 援護에도 돌리고 自體의 事業發展에도 쓰인다.

大規模建設業體인 榮工, 榮民等과 大理石加工에서 콜라會社에 이르는 10餘個의 大量雇傭業體가 그에 屬한다. 榮工은 公路 港灣 鐵道等의 建設과 其他의 中央政府建設事業과 省縣政府事業을 途行한다. 이들 政府事業은 普通 數三期 數三段階事業의 매우 長期間에 걸친 事業이다. 그 計劃期間이 지나칠 程度로 길어서 이 사람들의 能率을 疑心하기 쉬우나, 國家人力 및 物資需給政策과 關聯시켜 생각해야 할 것이다. 即 景氣가 好況期에는 人力과 物資不足이 따르고 不況期에는 그것들의 供給超過가 生긴다. 國民經濟는 不況時 物資·人力雇傭을 擴大해 주고 好況時에 그것들을 一般產業用으로

排出해주는 機構가 必要하다. 이것을 除隊軍人援護事業과 聯結시킨 데에 妙味가 있다. 그들이 어떤 機構를 만들고 運營함에 있어서는 一石二鳥 아닌 三鳥의 效果를 거두는 方向으로 짜내는 데에 그 安定的發展의 原動力이 있다고 思慮된다.

軍人은 대체로 未就練 單純勞動者이다. 그一部는 現役에서의 職務에 따라 管理技術이나 工法技術과 技能을 익히기도 하지만 大體로 除隊後 익히는 수가 많다. 各 產業部門에서 民間과 競爭的으로 運營되는 이들 生產的 援護機構들은 國家政策目標에 따라 運營되어 競爭民間業體에 模範을 주면서 그들의 競爭에서 效率性을 增進하며, 또한 편으로는 技術·技能人力을 養成하여 排出시킴으로써 民間의 教育訓練·技術開發費用을 輕減시키고, 人力·物資의 需給을 圓滑히 하는데에도 도움되면서 國策事業이나 生產을 遂行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一石三鳥의 事業은 青年活動中心에서도 볼 수 있다. 全島 名勝·觀光地에 散在하여 체인을 構成하고 있는 青年活動中心은 호텔·체인으로서 收益事業을 하고 있다.勿論 거기서는 適正利潤만 올릴 것이며 값도 民間호텔보다 低廉하다. 그러면서 青少年과 國民리크리에이션의 道場인 동시에 青少年·學生의 善導乃至 國家觀確立의 道場도 된다. 이 체인의 建設도 榮工 榮民에 依해서 서둘지 않으면서 遊休人力과 物資를 積儲해서 (따라서 低廉한 單價로) 지어졌을 것은 말할 나위 없다.

7. 結語 — 安定과 繁榮의 기틀

台灣經濟의 均衡成長 即 安定下繁榮의 源泉乃至 原動力은 民生主義라는 哲學이 담긴 原理下에서 그에 忠實한 政策을 訂立하는 領導集團에게서 發見된다고 하면 너무나 抽象的일지도 모른다.

보다 具體的으로 表現하자면 一石三鳥의 效果를 내는 國營 公營事業들에게서 그 源泉이 發見된다. 그들은 本來的目的에 忠實하되 반듯이 한편에서는 收益事業을 함으로써 政府豫算에 無期限 依存하지 않도록 짜여졌고 또 그렇게 한다. 그들의 大部分은 民間과 競爭하여 民間事業의 經濟的運營과 市場適合性을 배우면서 한편으로는 政府政策을 率先垂範하여 民間に 擴散시키고 適正價格과 適正利潤을 取한다. 그들은 新技術을 開發導入할 뿐 아니라 民間に 擴散시킨다. 計劃과 政策은 至極히 不可變의지만 伸縮의 幅을 두어 景氣에 對應하되 民間과 反對方向으로 人力과 物資를 흘르게 하며 需給均衡에 도움준다.

그렇게 함으로써 社會間接資本의 擴充과 物價의 安定에 先導的役割을 할 뿐아니라 國民醫療와 國家安定에도 크게 寄與한다.

台灣屈指의 綜合病院인 榮總醫院은 本來 援護機關이다. 이 亦是一般人도 商業的으로 受容한다. 그런點에서 民間病院과 競爭의이다. 그러나 除隊將兵과 直系家族은 榮總醫院과 그 指定病院에서 特

別待遇로 診療받게 된다.

解放後 30 餘年, 이제는 거의 全體家庭이 除隊軍人 한 두名은 갖게 되었을 것이다. 이들을 위해서는 全國市鎮에 슈퍼 - 마켓도 開設되어 比較的 低廉하게 商品을 내어놓고 있다. 여기서도 一般人도 利用이 可能함은勿論이다.

生必品의 購買가 低廉하고 便하게 되고, 醫療惠澤이 普及되며, 雇傭機會를 創出해 내는 機構가 있고 더 좋은 條件이 있으면 언제나 떠나가게 하며, 家庭의 生活安定을 期한 위에 社會間接資本이 繼續擴充되어 나가고 研究開發成果가 傳播되는 環境下에서 民間企業이 競爭力を 갖추지 못한다면 陶汰되어 마땅할 것이다.各自의 事業은各自의 責任下에 하는 것이라는 社會的通念은 事業을 보다 健實하게 펼치고 運營하게 할 것이다.

國家는 家庭生活과 企業活動의 與件을 갖추어 주고各自 뛰게 하는데서 오늘날 台灣經濟의 安定과 成長을 가져오게 한 原動力を 찾을 수 있을 것이다.勿論 거기에는 土地·不動產政策에서 보는바와 같이 國民의 價值觀과 符合되는 確固한 政策指針下에 物價의 安定과 國公營業體가 擔當하는 物資·人力의 需給을 圓滑히 해준다는 點이 大前提가 된다는 것은 再言을 要치 않는다. 國公營이라고 해서 반듯이 非競爭的 다시 말해서 政府獨占이 아니고 民間과 競爭的으로 設置運營한다는 點이 台灣經濟의 가장 重要한 特懲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에서 西歐의 議會社會主義의 政策 即 特定產業을 指定하여 全面的으로 國有化하는 方式과 差異난다. 그럼으로써 市場마라니즘을 사려 競爭下의 效率을 얻으면서 政府의 目標乃至 意志를 바로 그 市場에 傳播되도록 하는 指導理念과 機構 그리고 그 有機的運營—— 이것을 「指導下의 市場經濟」 The Guided Market Economy라고 불러본다.——에서 우리의 배울 點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